

“경기전” 일대 영어안내판의 오류 분석: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최희섭
(전주대)

1. 서론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한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자료에 따라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년도별 방한 외국인 수 (단위 천명)

년도	방한외국인 수	년도	방한외국인 수
1997	3,908	2003	4,753
1998	4,250	2004	5,818
1999	4,660	2005	6,022
2000	5,322	2006	6,155
2001	5,147	2007	6,448
2002	5,347	2008(1월-8월)	4,437

(<http://.../statisticsView.jsp>)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도의 통계는 1월부터 8월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4백 43만 명 선에 그치고 있지만,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숫자가 4백 12만 명 선인 것과 비교해보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방한한 사람들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방한한 사람이 3백 24만 명으로 가장 많다.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일본의 방한객이 가장 많고, 중국에서의 방한객이 그 다음으로 많지만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미주지역에서의 방한객이 50만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구주지역에서의 방한객이 39만명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대양주에서의 방한객은 8만명, 아프리카에서의 방한객이 1만 7천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http://.../statisticsView.jsp>).

이들이 방한한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이 291만 8천명이고 업무차 방한한 사람이 24만 4천명,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방한한 사람이 7만 2천명, 승무원이 61만 3천명, 기타가 59만명이다(<http://.../statisticsView.js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많은 외국인이 서울이나 제주를 관광하더라도 일부는 다른 지역을 관광할 것으로 짐작된다.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나 지역 행정관청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장소가 전주인 것은 자명하다. 전주에는 도청이 자리잡고 있으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내 발견유물’과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 36’ 등의 국보를 비롯한 11점의 보물 및 수많은 사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전은 가장 중요한 사적 중의 하나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기전은 조선왕실의 뿌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곳에는 조선 태조왕 이성계상(像)이라는 보물과 경기전이라는 사적 및 동일한 이름의 유형문화재와 조경묘라는 유형문화재, 그리고 예종대왕 태실 및 비라는 민속자료가 있다. 이 보물 및 사적과 유형

문화재 그리고 민속자료는 2000년 12월 30일에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문화재 안내판 문안집』(이하 『문안집』으로 약함)에 수록되어 있다. 사적지 경기전에는 이 이외에도 전주사고(全州史庫)를 비롯하여 세종임금을 포함한 여섯 왕에 대한 안내판 및 체례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많은 유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판도 있다. 이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 관광객은 영어안내판에서 정보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안내판이 관광객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경기전 일대에 있는 안내판이 26개에 달하지만 본고에서는 전라북도에서 펴낸 『문안집: 국가지정편』과 『문안집: 도지정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개의 안내판만 살펴본다. 전라북도의 용역을 받아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여 이 『문안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신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판의 문안은 오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많은 오류가 눈에 뜨인다. 공신력이 있는 『문안집』에 있는 안내판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관광지 안내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어안내판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2. 본론

한국관광공사에서 2008년 1월에 발간한 『2007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이하 『용례집』으로 약함)에 나와 있는 관광용어 외국어 표기 기준은 “모든 한글명칭의 영문표기는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하 『표기법』으로 약함)을 준수하여 고유명사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뒤에 외국어 설명어를 붙여 준다. 단,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반복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설명어를 빼고 고유명사 부분만을 로마자 표기한다”(3)고 되어 있다. 『문안집』이 발간된 것은 2000년 12월 31일이다. 이보다 앞서 2000년 7월 19일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기법』을 공포한 바 있다. 『문안집』은 『표기법』이 발표된 후에 발간되었으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표기되었고, 관광지의 안내판은 그 이후에 제작되었으므로 이 『표기법』에 따라 맞추어져 있다.

2.1 조선 태조왕 이성계상

경기전 안에 있는 보물 931호인 조선 태조왕 이성계상의 안내판은 제목에서부터 오류의 문제도 있지만, 부실한 관리가 두드러진다.

ST:

조선 태조왕 이성계상
朝鮮 太祖王 李成桂像

TT:

The Portrait of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한글과 한자에서 ‘왕(王)’이라는 글자를 끊어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철판에 새긴 글자를 짓뭇갠 것으로 볼 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므로 관리자가 이렇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한 행위이겠지만, 외관상 매우 좋지 않으며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다.

TT에는 ST에 있는 이성계라는 말이 빠져 있으며, 태조와 왕을 함께 넣은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용례집』의 기본지침 ‘설명어를 붙이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이 『용례집』에 나와 있는 ‘설명어를 붙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한글표기에서 붙여 쓰는 용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한다. 따라서 용어 전체를 로마자 표기한 후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영어 설명어를 붙여 준다.

예) 불국사 Bulguksa Temple 경북궁 Gyeongbokgung Palace 춘천호 Chuncheonho Lake

나. 로마자 표기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한글표기에서 띄어 쓰는 표제어는 고유명사 부분만 로마자 표기하고 보통명사 부분에 대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영어 설명어를 붙여준다. 그리고 한글의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가 모두 가능한 표제어는 띄어 쓰는 표제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용두산 공원 Yongdusan Park 별천 계곡 Byeolcheon Valley (『용례집』 3)

이 기준에 따르면 TT는 “The Portrait of Taejo Lee Seong-gye, King of the Joseon Dynasty”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경우 태조가 조선 왕조의 여러 왕 중의 하나로 되고 건국시조라는 의미가 사라지므로 “King”을 “Founder”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ST의 엄격한 사실을 최대한 충실하게 보존한다는 번역 본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다(박경일 18). 남성우가 말하듯이 대체는 대응어로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어휘로 대체해서 번역하는 방법으로 일반화가 대표적인 방법인데, 일반화는 특정 어휘의 번역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상위 범주의 개념어로 번역하는 방법이다(132). 여기에서 “King”과 “Founder”는 모두 일반적인 개념어이기 때문에 상위 범주의 개념어로 번역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Founder”로 대체하여 태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원문에 보다 충실한 번역이다.

ST의 “조선”을 TT에서 “the Joseon Dynasty”라고 한 것은 삽입에 의한 명료화라고 할 수 있다. 이근희는 삽입을 해당 어휘나 해당 문맥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가 추가의 정보를 덧붙이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121). 번역가는 생략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 삽입하여 목표 문화권의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최희섭, 2007 72). 그렇지만 안내판의 특성상 제목이 너무 장황하면 좋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줄여서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또는 더욱 간단하게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Founder of Jose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관광안내판은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용례집』 5) 지나친 부연설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내판 본문은 다음과 같다.

ST: 이 그림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이다. 경주·평양 등지에서 보관하던 이성계 초상화는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전주 경기전에서 보관하던 것만 남아 있다.

이 초상화는 고종 9년(1872)에 기존의 낡은 초상화를 태워 묻고, 서울 영희전(永禧殿)에 있던 태조 초상화를 본떠 새로 그린 것이다.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를 입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마주잡고 의자에 앉아 있는 태조의 정면 모습이다.

얼굴과 옷 주름을 처리한 음영기법, 의자와 자리의 화려한 색채, 어깨에

그런 용의 금박 효과 등에서 초상화로서의 높은 품격이 보인다. 한 왕조를 세운 인물의 위엄이 시대를 뛰어 넘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TT: This is the portrait of King Taejo, Yi Seong-gye who founded the Joseon dynasty. The portraits of Yi Seong-gye in Gyeongju and Pyeongyang were burned down during the war against Japanese army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Imjinwaeran), remaining only the portrait of Gyeonggijeon.

The existing worn-out portrait was buried and burned down in 1872, and it was newly painted, modeled after that of Yeonghuijeon in Seoul. The king is featured in this portrait from the front, putting on his clothes and hat, putting his hands together and sitting on his throne.

The line of his face and the cloth pleats, the chair and colorful rug, a dragon foiled with gold on the shoulder create a high state of grace in the King's portrait. The dignity of the person who built a dynasty descends to us vividl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¹⁾

ST의 둘째 문장에서는 “경주·평양 등지에서” 알 수 있듯이 태조의 초상화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가 전주, 경주, 평양 세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TT에서는 이를 전주의 경기전과 경주 및 평양 세 곳에서만 보관한 것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는 “등”이라는 글자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와 일본군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이었는데 이를 “the war against Japanese army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Imjinwaeran)”라고 함으로써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분사구문으로 제시된 “remaining”은 주어가 불분명한 문장이 되고 있다.

둘째 문단의 TT는 보다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존의 낡은 초상화를 태워 묻은” 사실이 낡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TT에서는 “불타버렸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과 “burned down”과 “buried”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두 어휘의 순서가 뒤바뀌어 묻은 다음에 불타

1) 안내판에는 이와 같이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문안집: 국가지정편』에는 한글과 영문 공히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10-11).

버렸다는 의미로 되었다. ST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초상화가 새 초상화라는 것이므로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고 옛 초상화를 불태워 문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ST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은 “익선관”과 “곤룡포”라는 특정한 문화소를 “his clothes and hat”이라고 일반적인 어휘로 번역하여 왕이 평상시 업무를 볼 때 쓰는 모자라는 의미와 왕의 옷이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이는 나체가 아니라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는 의미만 전달함으로써 초상화의 주체가 왕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셋째 문단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잘못 파악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 눈에 띈다. “얼굴과 옷 주름을 처리한 음영기법”을 “The line of his face and the cloth pleats”라고 함으로써 초상화를 그린 기법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깨에 그린 용의 금박 효과”도 역시 “a dragon foiled with gold on the shoulder”라고 함으로써 용문양이 아니라 용의 모형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고 있으며, 양어깨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단수로 취급하여 한쪽 어깨 위에 용의 형상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오역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번역한다면 아래에 예시한 TT와 같은 번역이 될 것이다.

TT: This is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the first king named Taejo and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His portraits in Gyeongju, Pyeongyang and other places were burned up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only the one in Gyeonggiyeon of Jeonju remained. This is a newly painted one modeled after that of Yeonghuijeon in Seoul, and the worn-out portrait was burned and buried in 1872. His front is portrayed in royal robe and royal ordinary hat sitting on the throne holding his hands together. The royal portrait's grace is expressed by the technique of shade in the face and plaits of his dress, the magnificent color of the throne and the rug, the dragon-pattern in gold foil on the shoulders etc. The dignity of the founder of a dynasty is felt vividly though he was a king of the past.

2.2 경기전(사적)

두 번째로 살펴보는 안내판은 경기전이라는 사적의 안내판이다. 이 안내판

의 한글 부분에도 조선 태조왕 이성계상과 마찬가지로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다.

부속 건물을 거느린 웅장한 규모였으나, 일제 강점기시대 때 절반의 땅을

buildings, but it lost the half of the l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여기에는 철판을 덧대고 글자를 새로 써넣었기 때문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그렇지만 영어 안내판에는 수정된 흔적이 없다.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문안집: 국가지정편』에는 “일제 식민지시대”라고 되어 있으나 안내판에는 위의 캡션에 보이듯이 그 위에 철판을 덧대고 “일제 강점기시대”라고 고쳐 놓았다(23). 미봉책으로 수정했다고 여겨지지만, 누더기 안내판이 되고 말았다.

제목으로 쓰인 ‘경기전’이라는 말은 궁궐을 본 딴 하나의 전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제목은 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가리키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안에 ‘경기전’이라는 이름의 전각이 따로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경기전 일대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Gyeonggijeon”이라고 하기 보다는 “Gyeonggijeon Sanctum Area”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차번역만 해놓으면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어를 붙이는 것이 외국인에게 친절한 번역이 된다.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붙여준 설명어는 괄호 없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용례집』 4).

안내판 본문은 다음과 같다.

ST: 이 곳 경기전 일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경기전을 비롯한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이 자리 잡고 있다.

본래 경기전은 옛 전주부성 동남쪽에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많은 부속 건물을 거느린 웅장한 규모였으나, 일제 강점기시대 때 절반의 땅을 잃고 부속 건물은 철거되었다.

이후 점차 복원하여 옛 모습의 일부나마 되찾은 경기전 경내에는 조선 예종대왕의 태를 묻어두었던 태실과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있다.

경내의 뒤쪽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 부인의 위패를 모셔둔 조경묘가 자리 잡고 있다.

TT: The whole area contains many historic relics and artifacts including Gyeonggijeon, built to preserve the portrait of King Taejo Yi Seong-gy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Originally, Gyeonggijeon was a gigantic building accompanying many attached buildings, but it lost the half of the l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annexes were removed. Gyeonggijeon has been restored and there are King Yejong's Placenta Stupa and Stele, and Jeonju sago housing the Joseon Wangjosilrok. On the back of the building is located Jogyongmyo enshrining the memorial tablets of Yi Han, a progenitor of Jeonju Yi family, and his wife.²⁾

ST의 첫 문장은 여기에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경기전과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역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The whole area contains”라는 말은 어색한 구문이다. 이 지역에는 이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야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이 된다.

ST의 둘째 문장에서 “경기전”은 사물이므로 많은 부속건물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은 의미상 바르지 못하다. “경기전”이라는 건물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전”이 위치한 자리가 넓은 자리였으며, “경기전” 이외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TT에서처럼 “Gyeonggijeon was a gigantic building accompanying many attached buildings”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왜곡을 가져온다. TT의 의미는 경기전이라는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었으며 이 건물에 많은 건물들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기전이라는 건물과 다른 여러 채의 건물이 인접해 있었다.

“일제 강점기시대 때 절반의 땅을 잃고 부속 건물은 철거되었다”는 그 다음 문장도 오류 투성이의 문장이다. “. . . it lost the half of the land”에서 대명사 “it”이 받는 것은 “Gyeonggijeon”이 된다. 경기전이 “땅의 절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경기전이 위치한 토지 면적의 절반이 상실된 것이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2) 『문안집: 국가지정편』에는 한글과 영문 각각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판에는 한글은 네 문단 영어는 두 문단으로 되어 있다(23-24).

전달하지 못한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를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통치 시대”라는 의미의 “under the Japanese rule”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일단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을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TT의 의미를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땅의 절반이 없어지고, 부속건물이 철거된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ST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땅의 절반과 부속건물이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류이다.

다음 문장은 경기전이 복원되었고, 경내에 예종대왕의 태를 묻어둔 태실과 기념비 및 전주사고가 있다는 의미이다. 복원된 시점이나 복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구문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동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이영옥 71).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예종의 태실과 비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태실”이 마치 태로 만들어진 탑인 것처럼 “King Yejong’s Placenta Stupa”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 다음의 “전주 사고”와 “조선왕조실록”은 매우 독특한 문화소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소라는 것은 원천 문화권에서만 사용되는 대상으로 목표 문화권에는 낯선 것이다(김도훈 33). 따라서 문화소를 번역할 때에는 원천언어의 형태적 측면 및 인지적, 정감적 측면 모두를 재현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음차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최희섭 2008 226). 음차번역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부가적인 설명의 삽입은 원문의 표층 구조에서 생략된 함축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최희섭, 2008 222).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적인 설명의 삽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TT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므로 독자가 읽을 때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ST의 그 다음 문장은 경내의 뒤쪽에 조경묘가 있다는 점과 조경묘라는 것이 이한과 그 부인의 위패를 모신 장소라는 점, 그리고 이한과 그 부인이 전주 이씨의 시조라는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TT에서는 “경내의 뒤쪽”이라

는 의미를 “on the back of the building”이라고 하여 “건물의 뒷벽”이라는 의미로 잘못 번역하고 있다. 전주 이씨의 시조를 이한으로 한정하여 “Yi Han, a progenitor of Jeonju Yi family”라고 한 것도 잘못이다. ST에 밝혀져 있듯이, 이한 혼자가 아니라 이한과 그의 부인이 전주 이씨의 시조이므로 “Lee Han and his wife, progenitors of Jeonju Lee family”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번역한다면 TT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TT: There are many historic relics and artifacts including Gyeonggijeon Palace built to preserve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the first king named Taejo and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area. Originally, the area was very large accomodating Gyeonggijeon Palace and many annexes in the Southwest of Jeonju, but half of the land was expropriated and the annexes were removed under the Japanese rule. Gyeonggijeon Palace was restored and there remain a stupa where King Yejong's Placenta is buried and a stela, and Jeonju Sago, historical archives in which the *Joseon Wangjosilrok*, history books of the royal palace were preserved. Behind of the palace, there is a shrine named Jogyeongmyo which enshrines the memorial tablets for Lee Han and his wife, progenitors of Jeonju Lee family.

2.3 경기전(유형문화재)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적 경기전의 안내판 이외에 건물 앞에도 ‘경기전’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안내판이 있다. 이 안내판은 이 건물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호임을 밝혀주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사적 경기전과는 다른 것이다. TT에 이 안내판의 제목이 “Gyeonggije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Gyeonggijeon Palace” 또는 “Gyeonggijeon Hall”, “Gyeonggijeon Sanctum”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판 본문은 다음과 같다.

ST: 경기전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는 곳

으로, 태종 10년(1410)에 세웠다.

태조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은 원래 개성·영흥·전주·경주·평양 등 다섯 곳에 있었는데, 경기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진왜란(1592) 때 모두 불에 타버렸다.

경기전도 정유재란(1597) 때 불탔으나, 광해군 6년(1614)에 다시 세웠으며, 희망을 두어 최고의 사당임을 나타내었다.

경기전 입구에는 말에서 내리는 곳임을 표시한 하마비, 붉은 색칠을 한 홍살문, 내삼문·외삼문 그리고 초상화를 모신 전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임금의 초상화와 향로를 옮길 때 사용하던 가마인 신연과 향정이 보관되어 있다.

TT: This is where the portrait of King Taejo Yi seong-gye is enshrined. It was built in 1410. Originally, five buildings were installed to preserve the portraits of Yi Seong-gye in Gaeseong, Yeongheung, Jeonju, Gyeongju, and Pyeongyang.

However, they were burned down during the war against Japanese army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Imjinwaeran) and only here Gyeonggijeon in Jeonju survived. With only but all of shrines except Gyeonggijeon were burned down late in the 16th century.

Gyeonggijeon was also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war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Jeongyujaeran), but it was rebuilt in 1614. Gyeonggijeon has a gallery and marked that it is the best shrine. At the entrance to the Gyeonggijeon are Hamabi to indicate the place to get off a horse, Hongsalmun painted in red color, Naesammun, Oesammun and Jeongak in which the portrait is enshrined.

In addition, Gyeonggijeon contains Sinyeon and Hyangjeong which were used to move the portrait and the incense burner.³⁾ (밑줄은 필자 강조임)

ST는 『문안집』을 문단만 나누고 그대로 썼지만 TT는 『문안집』에 대문자 “Yi Seong-gye”로 되어 있는 것이 소문자 “Yi seong-gye”로 되어 있다. 또한 『문안집』에 “with only But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내판에는 “With only but

3) 『문안집: 도지정편』에는 한글 영문 공히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판에는 한글은 다섯 문단, 영어는 네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3-4).

all”로 대소문자가 뒤바뀌어 있다. 셋째문단에서는 첫문장 “. . . 1614.” 다음에 “and burned down during Jeonyujaeran, but it was rebuilt in 1614.”라는 말이 『문안집』에는 잘못 들어가 있으나 안내판에는 없다(『문안집: 도지정편』 3-4).

ST의 첫 문장은 사적 경기전의 안내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다. ST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TT에서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TT에서 ST의 문장 형식까지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형식까지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ST에 있는 태조가 조선왕조를 세운 사람이라는 말이 TT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성계의 철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

ST의 둘째 문장도 TT에서는 세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적 경기전과 마찬가지로 태조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전각이므로 ‘building’이라고 하지 않고 ‘palace’나 ‘hall’ 또는 ‘sanctum’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을 세운 것이므로 “install”이라는 단어보다는 “buil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어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ST를 세 문장으로 번역한 것 중에서 첫 문장은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지 않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TT의 둘째 문장은 “However, they were burned down during the war against Japanese army at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Imjinwaeran) and only here Gyeonggijeon in Jeonju survived.”라고 되어 있다. 이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16세기 말에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운 전쟁 중에 불탔고 단지 여기 전주에 있는 경기전만 살아남았다”고 된다. 여기에서 “they”가 지칭하는 것이 앞에 나온 다섯 곳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모두 불타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이어서 단지 여기 전주의 경기전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장 자체가 상호모순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서 “With only but all of shrines except Gyeonggijeon were burned down late in the 16th century.”라는 불필요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설명한 말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필요 없는 문장이다.

16세기 말을 임진왜란이라고 괄호 속에 병기했는데, “영어 표기할 때 제목이나, 표지판 등에 쓰이는 용어는 괄호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용례집』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5). 임진왜란이

일본군과 대항하여 싸운 전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발생한 전쟁이므로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지칭하는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로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ST의 둘째 문장도 TT에서 세 문장으로 번역하면서 의미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셋째 문장도 ST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TT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TT 첫 문장의 “1614” 다음에 불필요한 “and burned down during Jeonyujaeran, but it was rebuilt in 1614.”이라는 말이 『문안집』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정유재란을 영어로 표기하면서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16세기 말이라고 하고 괄호 속에 정유재란이라고 표기한 것은 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정유재란도 일반적으로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7”이라고 표기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에 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destroyed by fire”라고 했는데, “burned down”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간결한 문장이 된다. “회랑을 두어 최고의 사당임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회랑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당임을 표시된다”는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문장에는 독특한 문화소가 많이 들어 있다. “하마비”, “홍살문”, “내삼문”, “외삼문” 그리고 “전각” 등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번역에는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음차번역을 할 경우 외국인들은 의미를 전혀 모르게 되고, 의미만 번역할 경우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TT에는 음차번역만 되어 있을 뿐이다. 문장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다. TT의 앞부분은 “At the entrance to the Gyeonggijeon are Hamabi to indicate the place to get off a horse. . . .”라고 되어 있는데, 하마비가 “말에서 내리는 곳을 표시”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stela” 또는 “stele”라는 어휘를 넣어주어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또한 한글에서는 “말에서 내린다”는 말을 “get off a horse”로 쓰면 뜻이 통하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말등에서 내린다”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get off a horseback”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고쳐보면 “At the entrance to the palace, there are a stela named Hamabi indicating the spot to get off a horseback. . . .”이 된다. 그 다음에 “홍살문”, “내삼문”, “외삼문”은 출입문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gate”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붉은 색칠을 한 홍살문”은 “a red

colored gate named Hongsalmun”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를 상실하지 않는 방법이다. “내삼문”, “외삼문” 및 “전각”도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화소적인 요소를 파괴하지 않으며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경우 “named”라는 어휘가 지나치게 여러 번 들어가므로 이를 생략하면서 바르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도 “가마”, “신연”, “향정”같은 문화소가 들어 있다. 이는 “홍살문”을 번역한 것과 같이 의미를 살려주면서 음차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하여 “In addition”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없어도 문맥상 하등의 지장이 없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다. TT에서 “신연과 향정이 초상화와 향로를 옮길 때 사용된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신연은 가마를 가리키고 향정은 향로를 가리키므로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ST의 주어가 신연과 향정인데 TT에서는 무리하게 “Gyeonggijeon”을 문장의 주어로 삼아 경기전이 전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창고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번역하였다. TT에서 “Gyeonggijeon”을 빈번하게 주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ST에 4회 나오는 “경기전”이 TT에는 6회나 사용되어 있는데, 짧은 안내판에서 동일한 어휘를 너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번역해보면 아래의 TT와 같이 될 것이다.

TT: Gyeonggijeon is a palace built in 1410 where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the first king named Taejo and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is preserved. Though there had been five palaces in Gaeseong, Yeongheung, Jeonju, Gyeongju, and Pyeongyang to preserve the portraits of Lee Seong-gye, the other four palaces except the one in Jeonju were burned up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ough the palace in Jeonju was burned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7, Gyeonggijeon was rebuilt in 1614. This palace is marked to be the best shrine by a gallery. At the entrance to the palace, there are a stela named Hamabi indicating the spot to get off a horseback, a red colored gate Hongsalmun, an outer gate Oesammun, an inner gate Naesammun and a hall Jeongak in which the portrait is enshrined. A palanquin Sinyeon which was used to move the portrait and the incense

burner and an incense burner Hyangjeong are preserved here.

2.4 조경묘

여기에서는 유형문화재인 경기전이라는 전각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호인 조경묘를 살펴보도록 한다. 조경묘는 무덤이 아니라 사당이다. 안내판의 제목이 한글안내판에는 “조경묘(肇慶廟)”라고 되어 있고 영어안내판에는 “Jogyongmyo”라고 음차번역되어 있다. 제목만 보아서는 이 건물의 성격을 도저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제목에 “Shrine”이라고 부가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례집』의 설명어를 결정하는 기준에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설명어를 붙인다”고 하면서 “북한산(山)”은 “Bukhansan Mountain”으로 “만춘전(萬春殿)”은 “Manchunjeon Hall”로 “자경전(慈慶殿)”은 “Jagyeongjeon Chamber”으로 표기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따르면 바른 번역이 된다(6).

안내판 본문은 다음과 같다.

ST: 이 사당은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과 그의 부인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이한은 신라 때 「사공(司公)」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고, 그 부인은 경주 김씨이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이한으로부터 21대 후손이다.

조경묘는 조선 영조 47년(1771)에 세워, 영조가 세손(정조)으로 하여금 쓰도록 한 시조 내외의 위패를 봉안했다. 철종 5년(1854)에 경기전과 함께 보수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조경묘는 경기전과 함께,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하는 곳이다.

TT: This shrine, which was built in 1771, is where memorial tablets for Yi Han, a progenitor of the Jeonju Yi family, and his wife—a member of the Gyeongju Gim Family—are enshrined.

This building was built in 1771 and the memorial tablets were written by King Jeongjo (reigned 1776~1800).

It was repaired together with Gyeonggijeon in 1854. Yi Seong-gye, Yi Han's direct descendant 21 generations removed, was a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The building which also contains a portrait of King Taejo
Yi Seong-gye affirm that Jeonju is the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⁴⁾

ST의 첫 문장은 이곳이 사당임을 밝히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어 안내판은 ST를 올바르게 번역하지 않고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어 재구성하고 있다. TT의 첫 문장은 ST의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하나로 묶어 번역하고 있으며, 이한이 신라 시대에 사공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다는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고 있다. 생략함으로써 번역은 원문의 내용 전체를 재현해야 하고, 형식과 기법은 원문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를 위반하고 있다(최희섭 2007 53).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삭제나 생략은 ST에 표현된 특정 표현을 삭제하거나 생략하여 번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ST에 목표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내용이나 표현, 또는 왜곡되거나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부분과 같이 목표 문화권의 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최희섭 2007 72; 남성우 134). 이근희도 성(性), 인종,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 무능력,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번역방법으로, 구문론적 수준과 의미론적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22). 그렇지만 여기에서 생략한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생략이나 누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략 이외에도 TT의 첫 문장은 의미상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전주 이씨의 시조는 이한과 그의 부인인데 TT에서는 이한 혼자 전주 이씨의 시조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내판이나 표지판에서는 괄호나 괄호를 대체하는 대쉬(dash)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쉬를 사용하고 있다.

ST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은 TT에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상세히 말하면, ST 둘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이한으로부터 21대 후손이다”는 TT의 셋째 문단 두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ST 셋째 문

4) 『문안집: 도지정편』에는 한글과 영문 공히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판에는 한글은 네 문단 영문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다(7-8).

단 전체가 TT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첫 문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번역도 충실하지 못하여 “태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며 “descendant”에 관사도 누락되어 있다. 문단의 순서가 뒤바뀌어 글이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되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었다.

TT의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첫 문장은 ST의 셋째 문단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도 불필요한 괄호가 삽입되어 있다. 괄호에 삽입된 것은 ST에 없는 내용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번역가는 생략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 삽입하여 목표 문화권의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삽입된 정조의 통치기간은 없어도 무방한 불필요한 정보이다. 오히려 TT에 생략 혹은 누락되어 있는 정조가 위패를 쓴 것은 영조의 명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과 1854년에 보수된 것은 철종에 의해서라는 사실은 생략하거나 누락되지 말아야 할 정보이다.

ST의 마지막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번역가는 TT에서 ST에 없는 내용인 이 건물은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삽입하면서 조경묘와 경기전을 생략하고 있다. “상징한다”를 “affirm”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affirm”에는 “상징한다”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 번역하면 아래의 TT와 같이 될 것이다.

TT: This shrine built in 1771 is where memorial tablets for Lee Han and his wife, progenitors of the Jeonju Lee family are enshrined. Lee Han had a high government position named Sagong in the Silla dynasty and his wife was a member of the Gyeongju Gim Family. Lee Seong-gye, the first king named Taejo and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descendant of Lee Han 21 generations removed. This shrine was built in 1771 by king Yeongjo and he had his grand son, king Jeongjo write and enshrine the memorial tablets. It was repaired together with Gyeonggijeon palace in 1854 by king Cheoljong. Jogyongmyo shrine and Gyeonggijeon palace make Jeonju symbolize the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

2.5 예종대왕 태실 및 비

마지막으로 예종대왕 태실 및 비를 살펴본다. 이 안내판의 제목은 “King Yejong’s Placenta Stupa and Stele”이다. 태실이 일종의 탑이고 그 안에 태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Stupa where King Yejong’s Placenta is Buried and Stele”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제목이 매우 장황하게 되므로 간략하게 “Stupa Containing King Yejong’s Placenta and Stele”로 줄여 쓰는 것도 무방하다.

이 안내판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ST: 이곳은 조선 예종대왕의 태(胎)를 묻은 석실이다. 왕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를 소중히 석실에 묻었는데, 이를 태실이라고 한다. 원래 완주군 구이면 원덕리 태실마을 뒷산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

이 태실은 팔각형 돌 난간 안에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둥근 돌을 얹은 다음 지붕돌로 덮었다. 비석은 태실과 함께 옮긴 것으로, 예종대왕의 태실임을 알리는 글과 비석의 건립연대를 앞 뒷면에 각각 새겼는데, 건립연대는 선조 11년(1578)이다.

잘 보존된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뿔 없는 용의 모습을 새긴 머리 돌이 돋보이는 비석이다. 이 태실과 비는 왕실에서 태를 처리한 방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TT: This stupa contains the placenta of King Yejong in Joseon dynasty. When a baby was born from a royal family, its placenta was buried in the stupa.

It had originally been located on a hill near Taesil village at Wondeok-ri in Gui-myeon of Wanju-gun but then it was moved here.

This stupa is on a stone foundation and is capped with a roofstone. There is an octagonal railing surrounding it. The inscription on the front of the stele says that the stupa contains King Yejong's placenta and the date of its erection is carved on the back.

The characteristics of it are the turtle-shaped footstone and the dragon-carved marble capstone.⁵⁾

5) 『문안집: 도지정편』에는 한글과 영문 공히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판에는 한글은 세 문단 영문은 네 문단으로 되어 있다(52-53).

TT의 첫 문장에서는 관사의 오류가 눈에 띈다. “Joseon dynasty”를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관사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oseon”은 고유명사이지만 “dynasty”는 보통 명사이므로 관사를 붙여야 한다. 특정한 “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야 한다.

TT의 둘째 문장에는 전치사의 오류가 보인다. “에서”라는 의미에서 “from”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출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왕가라는 장소에 서라는 의미이므로 “in”을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다. 왕가에서 태를 석실에 묻는 것은 예종대왕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행위이므로 TT에 이러한 점을 밝혀야 하는데, TT에는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다. ST의 첫 문단에 있는 이 태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 TT에서는 독립된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단 나누기를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완주군 구이면 원덕리 태실마을 뒷산에 위치해 있던 태실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므로 TT에 있는 “originally”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는 사족이며, “but then”이라는 말도 “before”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TT의 셋째 문단은 이 석탑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ST에는 기단과 본체 및 지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TT에는 본체가 누락되어 있다. ST의 그 다음 문장은 “비석은 태실과 함께 옮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TT에서는 이것도 생략되어 있으며, 앞뒷면에 새겨놓은 글귀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다. TT에서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진 글을 설명하면서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두 문장이 됨으로써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고 있다. 또한 건립연대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ST에 있는 “선조 11년(1578)”이라는 명확한 연대가 누락되어 있다. 이 문단에서는 지나친 삭제, 누락으로 인하여 ST의 의미가 부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으며 종속접속사와 등위접속사가 잘못 사용됨으로 인하여 문맥의 혼동을 초래한다.

ST의 셋째 문단이며 TT의 마지막 문단도 많은 누락과 인칭대명사의 사용 오류가 눈에 띈다. “잘 보존된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뿔 없는 용의 모습을 새긴 머리 돌이 돋보이는 비석”이라는 말은 이 비석에 새겨진 문양이 매우 우수한 솜씨라는 의미이다. 또한 여기에 조각된 용의 모습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뿔이 없다는 사실인데, 이를 생략하고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하고 있다. ST의 마지막 문장 “이 태실과 비는 왕실에서 태를 처리한 방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말은 TT에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 이 태실과 비의 의미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번역하면 TT와 같이 될 것이다.

TT: This stupa contains the placenta of King Yejong in the Joseon dynasty. When a baby was born in a royal family, its placenta was customarily buried in a stupa. This had been located on a hill near Taesil village at Wondeok-ri in Gui-myeon of Wanju-gun before it was moved here. This stupa is made of a footstone, a round stone body and a roofstone surrounded by octagonal railings. The stele moved together with the stupa has an inscription saying that King Yejong's placenta is laid in the stupa and it was erected in 1578, the eleventh year of King Seonjo. Its excellence is shown in the turtle-shaped footstone and the capstone on which a dragon without horn is carved. The stupa and the stele show the royal family's way of treating the placentas.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개의 안내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는 생략 또는 삭제나 누락과 구문상의 오류, 문법상의 오류이다. 복잡한 구문의 번역에서 생략이나 삭제, 누락이 많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오류는 문법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고찰해보면 구문상의 오류, 전치사의 오류, 어휘의 오류 등 다양한 오류가 모두 발견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생소한 문화소를 영어로 음차번역하면서 외국인 이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 관광안내판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1. 모든 한글명칭을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외국어로 표기할 때 옆두에 두어야 할 전체는 외국어표기의 주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표기에 있어서 한국인의 표기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 적합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적인 외국어로 표기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용례집』 1)

그러므로 독특한 문화소적인 사물이나 개념은 음차번역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개의 안내판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관광지 안내판을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안을 정비하고 제대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각종 외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관광지명, 음식명, 관광안내문, 기타(인명, 지명) 등”과 “외국인출입이 빈번한 공공시설의 각종 외국어안내문, 표지판(공항, 해항, 철도역, 지하철, 버스 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 감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http://.../bst_2_4_1.jsp). 물론 한국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문안집』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개의 안내판에 이와 같은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안내판에도 수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이의 점검과 수정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1, 31-51.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I)」, 『번역학연구』 4:1, 5-26.
- 이근희. 2004. 「번역의 변환 현상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5:2, 113-144.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국가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 전라북도. 2000. 『문화재안내판 문안집』(도지정편). 전주: 도서출판 학예사.
- 최희섭. 2007. 『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도서출판 동인.
- _____. 2008. 「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9:2, 215-238.

한국관광공사. 2007. 『2007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Aixela, Javier Franco.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Alvarez, Roman and Vidal, Carmen-Africa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avedon and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52-78.

Porter, R. E., & Samovar, L. A. 1991. “Basic principl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 A. Samovar & R. E. Porte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CA: Wadsworth. 6th ed., 5-21.

Venuti, L.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dataCourt/statisticsData/statisticsView.jsp>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kor/bs/marketing/public_promotion_support/foreign_tour_guide_edited/bst_2_4_1.jsp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kor/bs/download/2007_toursign_exam.pdf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Abstract]

**Errors in English Information Boards of Gyeonggijeon Sanctum Area:
Focused on the Treasure and Cultural Properties**

Choi, Hie Sup
(Jeonju University)

As more and more of foreigners visit Korea these years, lots of foreigners drop by Jeollabuk-do. One of the most popular sightseeing places in Jeonju is Gyeonggijeon sanctum area, for there are the portrait of Lee Seong-gye which is one of the national treasures and other historical relics including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a folklore material in this area.

In this paper, five English information boards of Gyeonggijeon sanctum area are examined. Their titles are the Portrait of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a treasure), Gyeonggijeon(a historic site), Gyeonggijeon(a tangible cultural property), Jogyeongmyo(a 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King Yejong's Placenta Stupa and Stele(a folklore material).

As we see in the titles themselves, there are many errors in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s, though their texts were made by Jeollabuk-do. The most common errors are grammatical errors, contextual errors and vocabulary errors. In some cases, the translator omitted very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source texts and added unnecessary information.

Most of culture specific items were spelled in English as they are pronounced in Korea. That makes foreigners never understand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 relics. In the translation of the culture specific items, some kind of explanation should be added.

▶ Key Words: Gyeonggijeon, English information board, grammatical errors, contextual errors, vocabulary errors, culture specific item.

최희섭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영시, 동서비교문학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28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